추천 루트

소요시간 1시간

대천수각 루트

攻略路城

휠체어용 루트

HIMEJI Wi-Fi Free

영상을 통해 히메지 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상 시청

AR AR 마커

포토존

오디오 가이드

급경사로

화장실

코인 로커

1 히시(물밤나무) 성문

이 우아한 성문은 성의 정문 역할을 하며, 영주들과 그들의 고위급 신하들과 손님들이 사용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구조물의 한쪽은 돌담 위에 있고, 다른 한쪽은 더욱 기본적인 디자인을 따르며 경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입구 위에 있는 물밤나무 그림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2 산고쿠 해자

이 크고 네모난 연못은 방어 시설이자 성의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연못은 성 주변으로부터 배수로에 의해 운반되는 빗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는 니시노마루와 내성 사이에 있는 커다란 도랑의 일부였으나 1601년에 이케다 데루마사(1565–1613)가 히메지 성을 재건하면서 대부분의 도랑이 메워졌습니다.

3 히시 성문 동쪽 돌담

이 벽의 우아한 곡선은 미적인 장식 그 이상입니다. 벽의 모양은 뒤에 있는 저수지의 많은 양의 물로 인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 초대형 돌은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나타냅니다. 흰색의 회벽칠은 아름다우며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4 십자 모양 기와

이 문루의 박공널에 있는 기와 중 하나는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성이 건설되기 전에 히메지에 요새를 두었던 기독교도인 군벌 구로다 간베에(1546–1604)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와의 실제 출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5 유벽

이것은 한때 흰 회반죽으로 덮여 있던 벽의 흙으로 만든 내부입니다. 모래, 점토, 작은 돌을 섞어 만든 이 벽들은 거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6 북서쪽 소천수각

세 개의 소천수각 중 하나인 이 천수각은 대천수각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다른 두 개는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개 중 가장 큰 건물로, 외관상으로는 3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4층과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5층 구조입니다.

7 대천수각

히메지 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의 걸작입니다. 높이 45m가 넘는 히메지 성 중앙의 천수각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목조 천수각 중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천수각은 5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돌담 안쪽의 지하를 포함하여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 비젠마루 성채

원래는 다이묘 영주인 이케다 데루마사의 저택으로 혼마루 성채(제 1성채)의 일부였습니다. 한때 이곳에는 1882년 화재로 소실된, 화려하게 장식된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9 비젠문

천수각 동쪽에 있는 비젠마루는 원래 다이묘 영주의 거처였고, 이 문은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성문 옆 벽에 있는 깔끔하게 잘린 직사각형 돌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 돌은 실제로 성의 건축업자들이 파내서 용도를 변경한 관입니다. 성의 거대한 성벽을 쌓기 위해 여기저기서 돌을 가져왔고, 비슷한 돌들이 성터 곳곳에 흩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 타이코(북)탑

견고하게 강화된 이 탑은 성의 동쪽을 방어합니다. 1599년경에 완공되었으며, 성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북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경비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1800년대 후반 타이코 북을 보관하기 위해 탑이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11 오키쿠이도 우물

유명한 괴담에서, 오키쿠라는 하녀에게 그릇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우물에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 부채꼴 경사벽

우아하게 가파른 벽면의 곡선은 접는 부채의 곡선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본 이름은 '오기노코바이' 또는 '접이식 부채꼴 경사'입니다. 벽의 형태는 지진에 강하고 특히 오르기 어렵습니다.

13 니노마루 성채 (제2 성채)

이 성채의 근처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해 지어진 히시 성문과 같은 성문들과 망루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만약 침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성의 방어자들이 공격하기 유리한 비좁은 통로나 분리된 공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